

시인의 마음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

어느 날 아버지는 빨간 씨앗 한 말을 들고, 마루를 오르며 큰소리로 삼 형제를 인방으로 불러 모아 얼굴 가득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모습은 처음이라 얼떨떨할 때,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바라보다가 달콤한 목소리에 귀가 놀란다 삼 년이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정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면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일일이 진실한 건강 지킴이는 한 주먹 아버지 손바닥을 누비며 늦은 천장 위로 희망을 임대하고?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마음이 가지 않는 민방통치약이라니 피란 임시구와 드문드문 보이는 진실한 삼 뿌리를 확인하며 거닐던 고랑에는 서늘한 웃자락이 마를 줄 모른다 당신의 웃음만이 가득하고 칠없이 지저귀던 까치는 오늘도 개구리 잡으러 다시 왔건만 멧돼지가 늑대간 빛동 위 어지럽게 피어난 토끼풀을 만지작거리던



박 여 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튼실한 뿌리에 주렁주렁 다리를 끈 인삼 마차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일곱 색깔 무지개로 피어나고 흐르는 구름 사이로 다섯 식구 웃음소리에 명석 깔고 걸친 청산 막걸리는 봉분(封墳) 위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만 가득하다

|| 시어를 읽다 ||

한 마디로, 나는 촌놈이다. 충청도를 떠나 전주에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지나가 버렸다. 고향의 이런 한 추억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인삼과 관련한 추억은 잊을 수가 없다. 정자용의 '향수'와 육영수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 김강, 도리 쾨펜, 생선독수, 포도 등으로 유명한로 치료하고 있는 '묵헌'이 나의 고향이다. 기억하는 주소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관수리 265번지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옥천에서 가까운 남산은 인삼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인제부터인가 그 인삼 농사가 옥천에서 시작되어 많은 농작자가 인삼밭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아버지는 이웃들의 인삼 농사가 부번이름 하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는 가방에서는 인삼 뿌리가 우리 가족을 반갑게 해 주었다. 씩씩하고 맛이 없어 뱀이내기 일쑤였던 인삼, 참돔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 푹 끓여서 근골 기증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의 배려가 인삼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보약은 구경도

못 하던 그 시절, 우리의 보약은 바로 수확을 마친 인삼밭을 파헤치며 모아온 인삼 뿌리였다. 그 조각난 인삼을 깨끗하게 불기를 빼고, 끓여 넣어 놓은 뒤,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 먹여주던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 형제를 건강하게 키워낸 토양이었다. 인삼 이삭줍기가 마무리된 것은 일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동안 터득하신 기술로 인삼 농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기대가 었으나 첫 더 지, 인삼밭을 하루에 한 번씩을 꼭 둘러서 한창을 바라보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인삼으로 가족을 생계부담 아나라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노동을 함께하며 성장한 형제자매, 치매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썩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 주신 그 꿈은 '부산한 뿌리에 주렁주렁 나리를 끈 인삼 마차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일곱 색깔 무지개로 피어났다. 그리고 '흐르는 구름 사이로 웃음소리에 명석 깔고 걸친 청산 막걸리는 봉분(封墳) 위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이 가득하게 부족함이 없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매연습 중인 뉴욕 명물 '라디오시티 로케츠'



13일(현지시간) 라디오시티 로케츠 무용수들이 미국 뉴욕에서 연습하고 있다.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스펙터클 쇼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된 후 이번 연말 시즌에 돌아온다.

중의원 해산 후 만세삼창하는 기사다 총리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네 번째)와 의원들이 14일 도쿄 임시 각의에서 중의원을 해산 후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일본은 기사다 총리 내각 출범 4주 만에 중의원 해산되면서 오는 31일 총선을 치른다.

사설

대선 후보들의 스피치

요즘 대선 후보들의 스피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후보는 막말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하지만 막말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비록 거칠지만 솔직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알아주는 해당 후보에게 열광하는 것이다. 어느 후보는 스피치에서 전혀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발표한 공약은 손에 꼽힐 정도다. 사안마다 엄중히 바라보지만 하는 모호함과 미사여구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정광설을 늘어놓는 정치인보다 소 거칠어도 자기 생각이 뚜렷한 후보에게 호감을 갖는다. 남의 일에 이래라저래라 트집잡는 스피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정책도 의제도 내놓지 못해서 안 된다. 말은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 보고 말하면 무난하다. 쉬운 말을 하려면 말을 잘 풀어야 한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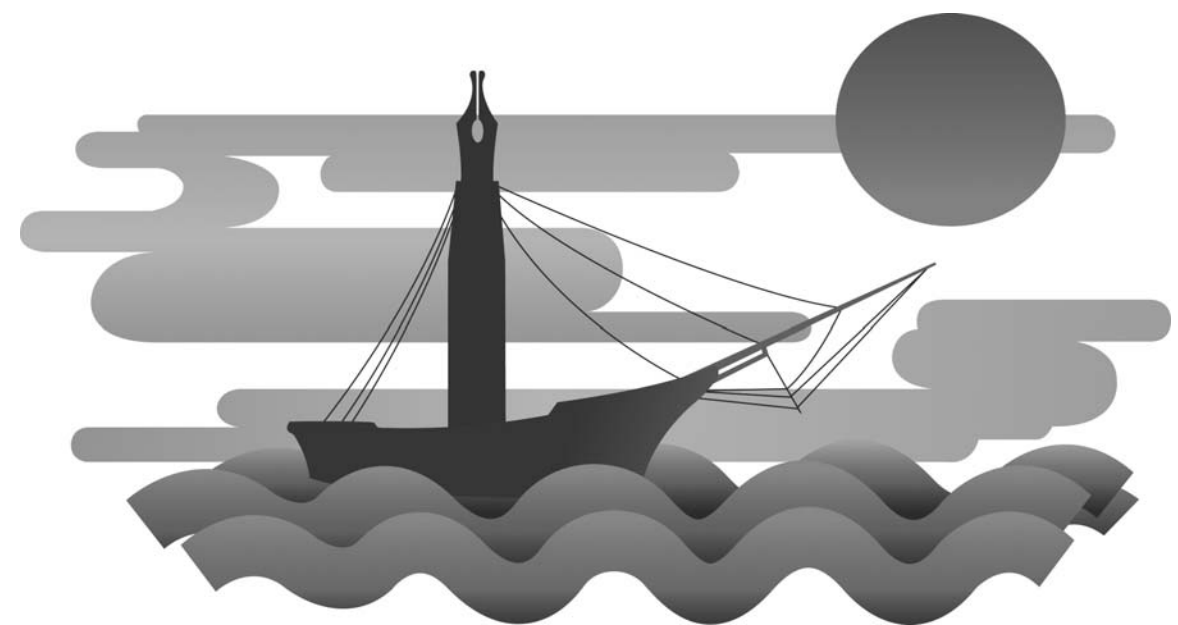
이 꽃꽂이의 비결이다. 말하기 전에 꽃꽂이의 비결을 생각하자. "무슨 말로 기쁘게 해 줄까"를 생각해 보자. 그래야 쉽고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려면 낮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좋다. 눈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쉽고 기분 좋게 말해야 한다. 쉬운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쉽게 이야기하자. 때를 잘 맞추어 쉬운 말을 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 쉬운 말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힘을 발휘한다.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도 쉬운 말로 잘 표현하자. 쉬운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메모, 질문, 반복, 감사 등을 습관화 하자. 말을 할 때는 듣기 편하고 듣기 쉬운 호칭도 중요하다. 대화의 시작은 호칭이다. 호칭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호칭이 무난하다. 정치는 스피치가 관건이다.

한국전쟁 최대 희생자 유해현장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 당시 최대 민간인 집단 희생자로 알려진 대전시 낭월동 산내 일명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이 지난 2007년 일련에 공개된 바 있다. 이곳은 전쟁 당시 최대 민간인 집단 희생자다. 희생자만 약 7천여 명 산에 이르는 곳이다. 대전 산내 골령골 사건은 1950년 7월 초 골령골에서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인근 지역 보도 연맹원들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대전형무소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시작된 유해 발굴 조사단의 1차 발굴 현장은 참혹했다. 워낙 규모가 커서 계속 발굴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 희생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명찰과 신발, 시계줄 등 세월에

물린 유물들이 당시 참상을 대변했다. 유해 주변에서 탄약이 다수 발견됐다. 좁은 구덩이에 집단 학살의 정황이 뚜렷이 나타났다. 가로 2미터, 세로 5미터의 좁은 구덩이에 5열중대로 묻혀 있는 유해가 집단으로 발굴됐다. 유해 주변에는 탄약이 다수 발견되는 등 집단 희생의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다. 해골에는 총탄 흔적이 남아 있고, 곳곳에 탄피와 열쇠 등이 발견됐다.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산내 골령골 1차 발굴은 5군데에서 모두 35구 이상의 유해를 확인했다. 집단 희생지는 대전 산내 골령골 뿐 아니라 전주 황방산, 전남 구례 봉성산,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등 수없이 많다. 처참한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집단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위령 사업을 통해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혼을 달래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